

현안과 과제

| 올해 추석 물가 심각하다

1. 최근 물가 상승세 추이

○ (현황)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물가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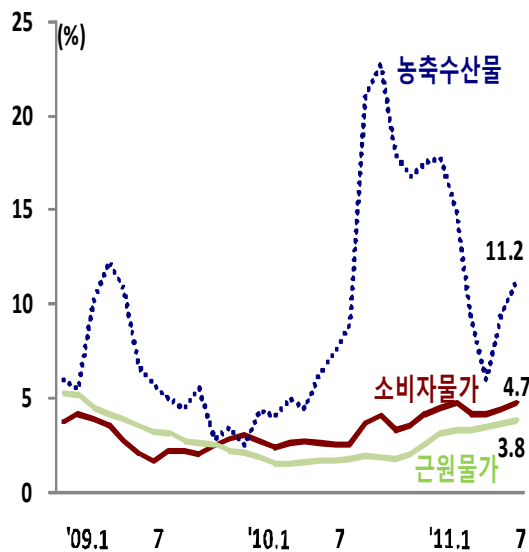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지수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 지속

- 농축수산물 지수는 2011년 5월 전년동월대비 5.9%, 6월 9.3%, 7월 11.2%로 급등세를 보임
- 국내 대표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 지수도 2011년 6월 4.4%, 7월 4.7%로 5%대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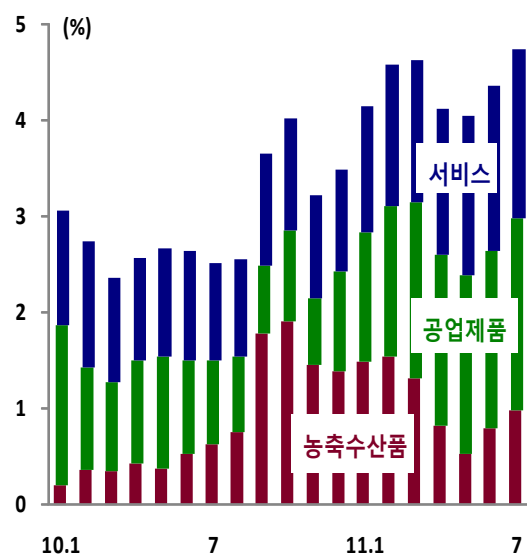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부문이 소비자물가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5월 13.1%, 6월 18.1%, 7월 20.8%로 증가세를 유지
-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2.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1월 2.6%에서 6월 3.7%, 7월 3.8%로 상승세 지속
- 한편, 소비자물가 증가율에서 석유류를 포함하는 공업제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5월 87%내외에서 2011년 7월 80%내외를 기록

<소비자, 농축수산물, 근원 물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



자료 : 통계청.

2. 추석 물가 급등 우려

□ 추석 관련 주요 제품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석 물가 불안 확대가 우려됨

- 특히,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세의 지속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른 부문으로의 물가 인상 전이 효과까지 우려됨

○ (추석 관련 주요 품목) 고구마, 오징어, 배 등 주요 품목 가격의 상승세 지속

- 추석 관련 주요 품목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음

· 채소류 : 고구마 가격은 2011년 5월 전년동월대비 25.6%에서 7월 38.9%로 높은 수준 지속. 도라지 가격은 2011년 5월 17.3%에서 7월 14.8% 기록, 고사리는 5월 5.8%에서 7월 7.7% 기록

· 어개류 : 조기는 2011년 5월 10.0%에서 7월 10.4%로 상승세. 고등어는 5월 28.4%에서 7월 36.4%로 높은 수준. 오징어는 5월 41.2%에서 41.0%로 높은 수준 지속.

· 과실류 : 밤은 2011년 5월 7.0%에서 7월에도 7.0% 기록. 배는 5월 27.8%에서 7월에도 27.8%로 30%내외 증가율을 지속하고 사과는 5월 16.7%에서 7월도 16.7%로 17%내외의 증가율 지속

· 기타 : 물엿은 2011년 5월 13.7%에서 7월 18.9%, 설탕은 5월 28.0%에서 7월 31.3%로 상승

< 주요 추석 관련 제품 가격 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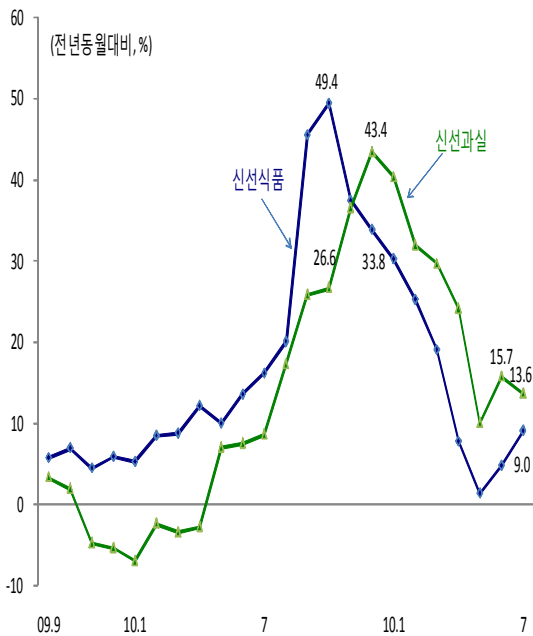
품목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5월	6월	7월	
채소류	고구마	2.5	-7.7	13.1	-2.1	3.1	11.6	25.6	25.6	38.9
	도라지	6.7	6.4	5.0	9.6	13.6	15.0	17.3	17.6	14.8
	고사리	8.2	8.4	8.3	7.9	8.9	8.6	5.8	6.4	7.7
어개류	조기	11.6	9.6	8.7	0.9	2.7	2.5	10.0	9.9	10.4
	복어	9.4	10.4	10.7	22.1	22.5	20.7	6.9	6.1	5.6
	고등어	-0.3	-6.0	-9.6	12.1	15.3	19.6	28.4	23.5	36.4
	오징어	21.4	19.4	14.0	23.1	27.8	43.0	41.2	41.4	41.0
과실류	밤	7.6	7.6	12.3	-5.2	-5.2	-9.1	7.0	7.0	7.0
	배	-0.5	-0.5	-0.5	20.0	20.0	20.0	27.8	27.8	27.8
	사과	0.2	0.2	0.2	9.5	9.5	9.5	16.7	16.7	16.7
기타	물엿	15.1	15.6	14.7	1.2	1.2	2.1	13.7	13.8	18.9
	설탕	15.4	16.6	24.3	5.6	4.5	10.6	28.0	29.8	31.3
	가스료	2.1	6.4	6.8	6.7	2.2	2.5	10.5	10.9	10.4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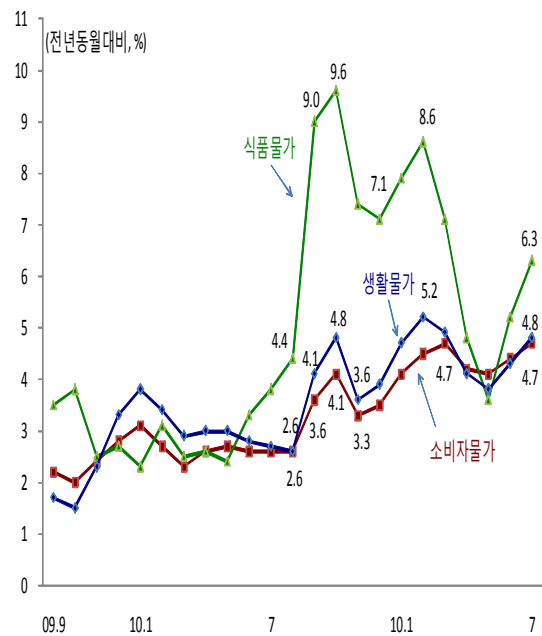
○ (농축산물 가격) 국내 식료품 및 농산물 가격 상승세 지속 가능성

- 국내 기상이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를 하고 추석 물가에 영향이 큰 신선과실 등 식료품 가격이 재상승하고 있음
 - 이상 기후 등 영향으로 신선과실 물가지수가 2010년 12월 43.3%에서 2011년 5월 10.0%까지 하락하였으나 7월 현재 13.6%로 2달 연속 상승
- 채소 및 과일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소비자물가 대비 높은 수준 이고 급등세를 보일 것임
 -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2011년 5월 1.3%에서 7월 9.0%로 상승세 유지
 -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물가도 7월 6.3%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
 -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2011년 7월 4.8%로 소비자물가 수준을 기록

< 신선식품 및 신선과실 물가지수 증감율 추이 >



< 소비자, 식품, 생활 물가지수 증감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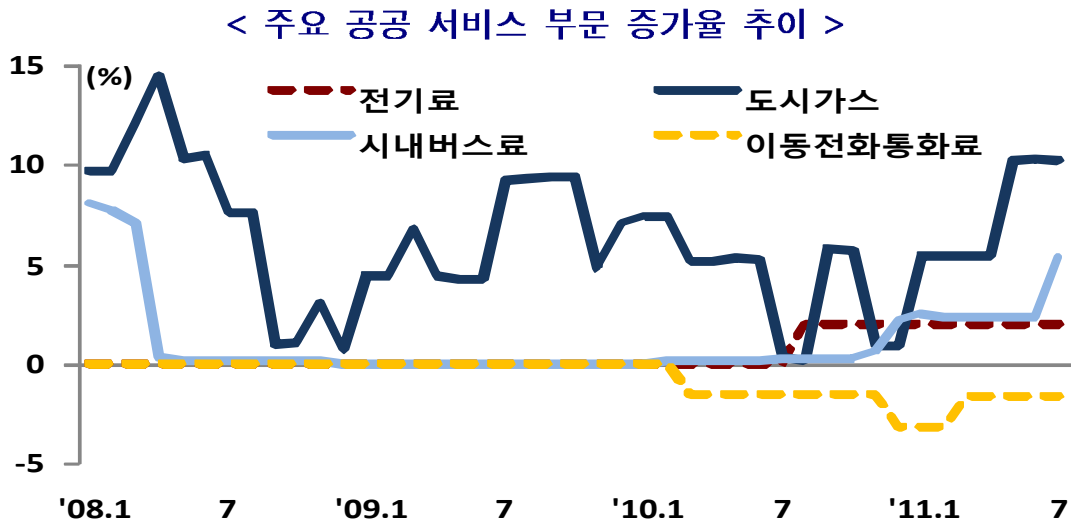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주 : 1) 신선식품은 채소·과일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
 2) 생활물가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52개 품목으로 작성.
 3) 식품물가는 식료품, 차와음료, 주류, 외식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 (공공 요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여파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높은 수준의 인상이 예상됨
- 전기 요금은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0%로 동결되었으나 2011년 8월 1일부터 4.9%로 증가율이 조정됨
- 도시가스 요금 증가율은 2010년 8월에서 2011년 4월까지 0.2%에서 5.8%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5월, 6월, 7월에 각각 10.3%, 10.5%, 10.3%로 높은 수준을 지속
- 시내버스 요금은 최근 5개월간 전년동월대비 2.4%를 유지했으나 7월 5.4%로 급등



자료 : 통계청.

- 공공요금 인상은 상품의 원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
- 공공요금이 10% 상승하면 생산자물가는 1.85%, 소비자물가는 2.24%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

<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

구분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10% 상승	1.85% 상승	2.24% 상승

자료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2010년.

주 : 2005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임. 산업연관모형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상승 요인 흡수, 경쟁상황 및 정부의 가격규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최대 변동 압력임.

3. 전망과 대응 방안

- (전망) 추석 전후 물가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향후 일조량이 많아지고 농산물 출하가 늘어나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추석 이후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높음
 - 일조량이 풍부해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소멸된다고 볼 때,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이는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단,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

- (단기 물가 상승 대응 방안) 추석 전후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물가 기대심리 차단, 외환시장 충격 관리 등 필요
 - 기존 계획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
 - 기 계획된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 장터 개설, 성수품 물가정보 제고 등을 통해 수급 안정 추진
 - 정부 차원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추석물가안정대책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물가점검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시
 - 농축수산물 적정 공급량의 사전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화
 -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급량을 예측하여 냉동 및 저온 창고, 해외 집단 재배 단지를 이용하여 수급 조절
 -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과 같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공급. 지자체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
 -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 물가 기대심리 차단에 주력 :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
 - 공공 부문 서비스 및 요금의 세분화 및 소액화를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약화 유도
 - 외환시장 충격 관리 : 유럽재정 위기 확산 등으로 인한 국내 외환 시장의 충격 관리 철저

임희정 연구위원(2072-6218, limhj9@hri.co.kr)